

신문여학.

평잡이거!

# 94' 여학생회 일꾼 모집지

여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을 알기에 남학생보다 두배, 세배의 노력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망에 따른 초차원이기보다는 대학인의 기본적인 생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티셔츠 하나라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

**2. 업적을 장려하기는 성취역문의 주방의 의지보다 당당히 일어서는 복원여성**  
아무도만 나재산, 나재산이다. 이런 사신, 포포도 미리모, 이런 농단, 복문, 정문 일의 흥만시적...경대두년은 그야말로 완전히 성취력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생활은 성장통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편승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더이상 지체할수 없으며 일어난 복원의 당당한 여학우들이 있다. 그들은 복원할 성장통과실패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우대상 불만분쟁에 대한 사정문화를 받고 직접 협주의 인담을 통해 이런 사신을 절거하고 영을 잃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이런 여학우들을 복원할 여의에서나 볼 수 있다. 자신의 생활 근거지는 스스로가 지켜나가겠다는 주인의식으로 복원여학우들이 있는 곳이라면 성취력 문화 추방의 노력이 시작될 것이 다.

**3. 여학우들의 생활 근거지인 과제서 전체를 위해 자기 역할을 맡으며 선배와 후배로 열심히 생활하는 민중적인 복원여성**  
인문대 여학우회에서의 가장 큰 단점 "10%만 인문여정"을 주제로 3분 할하기 대회를 열었다. 거기서 대상을 한 학우는 50%인 여학우였다. 그 예의 내용은 대학을 처음 들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고민하며 가장 가슴아파하게 물어온 이들이 과 선배 만나왔다고 함께 과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나타났고 지기가 많은 역말은 적혀 하나씩 그 과정에도 후배 하고 절정하는 단원였다. 그러나 중앙을경리안으로서 편지가 실한 단체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고 심지어 기술 과까지의 지도와 사업공부가 미미했다. 총여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여성문제를 입힌 힘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는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일선 여학우 인사팀 인사업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과의 주제를 만들어내고 그 역할을 풀어내야 한다. 이에 총여는 여학우 대표자들에 기반한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실천적 과정으로 함께 하여 일선에 근거한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내야 한다.

**방도,**  
또한 여학우 대표자회의를 정사시킨다.  
전여학우 대표자회의는 몇몇 관부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또 각 단위 여학우 주체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여학우회(부)장이나 어부회장의 지위를 제대로 알아 어대표에게 지휘와 책임을 부여하고 과역사 사업의 모범을 소하고 과역사사업이 정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어 여학우들의 지적 성숙을 꾀하는 자리이다.

또한 단체 과 여학우회전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2. 단체 제법 문명의 활동으로 단체의 자립자립력을 높여낸다.**

**준비법,**  
단체가 자립자립력을 가지려면 먼저 과역사 어대표에 대한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체 여학우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며 각과의 수중에 맞게 구체적인 대안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를 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의 사업이 과역사의 강화를 풍부할 수 있도록 자기 단위의 목표를 가지고 풀어나가 지도해 내어야 한다. 또한 단체여학우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여 중심으로 통일시켜 내야 한다. 단체는 중앙의 사업을 편달하는 단순한 통로는 아니며 중앙의 내용 미련의 풍부한 목표이자 중앙 사업을 단위에 맞게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인원 등 활동이 많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실정에 근거한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시범대의 여고사 문제와 같은 계열운동이 독자성을 잃기 늘 수도 있었고 그것이 학군의 명색만으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단체의 정서와 특성에 근거한 내용으로 입성사업이나 시범사업에서 녹여내야 한다.

**방안,**  
1) 단체 여학이 과역사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 여학우들의 연구 소위원회의 강화 및 분화  
과역사의 건설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가 단일 과사업 정형을 마련하였으나 원단대로 내리쳐서 실질적인 적용이 많이 어려워져 막바로 과로 내어감으로써 단체의 지도력도 담보하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인문대, 사회대를 중심으로 한 과역사 집행부제가 마련된 단체의 사업대 자신대를 중심으로한 어부회장으로된 단체, 단체 여학이 없는 곳에 대한 지원을 분과에서 마련하고 이를 단대로 녹여 단체의정자들이 과실정에 맞게 직접 지도해낸다.  
2) 여학인근단위를 통한 내용적 지도로 각 단위가 여학우에 근거한 자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사업에 가깝게 한다.

단위에 정칙이나 연구단위가 마련되어 단위 실정에 맞는 내용과 경력이 생산되어야 하나 아직 단체의 역량이 늑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중앙연구 단위로 풀

하나되기 1년전 1월 28~29일  
구룡포 수련원에서  
7천의 어깨동무 제9대 자쿠총여



## 글순서

회장인사	1
1박2일은 요렇게	2
<hr/>	
<b>강연</b>	
▣ 여성문제의 여학생회	3
올바른 여학생운동을 위하여	5
▣ 여학생일꾼들의 새로나기	9
▣ 제9대 총여학생회 총노선	11
<hr/>	
좋은 시 하나	18
[세상사는 이야기]	19
-UR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여집행부서소개	20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업은	22



## △ 일꾼 모꼬지는요

일꾼모꼬지는, 한 해 동안 여학생회 공간에서 함께 일할 일꾼들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이는 자리로서 1박 2일 동안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잘 모르던 일꾼들이 서로 친해지고, 여학생회 사업이나 여학생운동에 대한 감을 조금이라도 익힘으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총여및 단여의 1년 사업계획을 함께 하고 서로 도와서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사랑 ♥♥♥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할 일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나하나 찾아서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 가리켜 우리는 자주여성이라 부르리

참되게 사는 사람에겐 어제의 삶은 오늘에 되풀이되지 않는 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되게 사는 길을 찾으며 당차게 살고 있는 복현의 여학일꾼들이 있기에 조국의 내일은 밝기만 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라는 공동체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며 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여학우에게 함께 호흡하고픈 마음을 수줍게 고백했을 여학 일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몇날 밤을 설치며 준비했습니다. 당당한 우리 일꾼들을 맞기 위해 1년의 삶을 힘 있게 헤쳐나갈 힘과가 지해를 얻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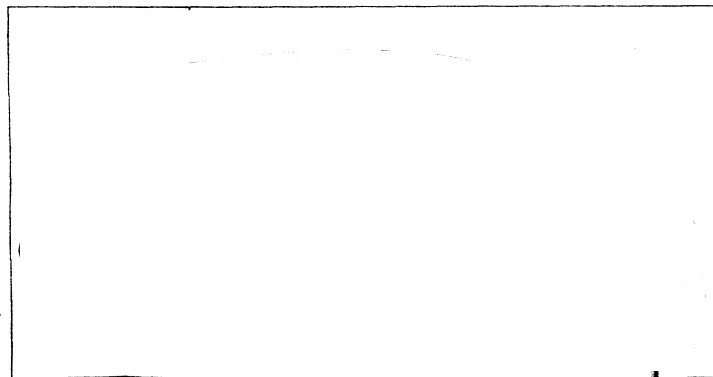
벌써 자랑스런 일꾼들을 맞을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벅차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가 되어 7천을책임질 논의와 결의를 내어 봅시다.

사랑합니다. 자랑스런 여학생회 일꾼들을---

94년 1월 자주총여학생 회장 이 상순

부회장 한 은정





**28일**

9:00 출발  
13:00 도착  
~15:00 강연1  
~16:30 세로모임  
~18:00 식사, 휴식  
~19:30 강연2  
~20:30 토론 총화  
~23:00 O L  
~1:00 뒷풀이, 취침

**29일**

7:00 기상  
~8:00 체조  
~9:30 식사, 짐정리  
~10:30 강연3  
~12:00 체육대회  
이후 대구로



강연1-1

## 여성문제, 여학생회(부문운동, 학생회와의 관계) 사업원칙

### 1. 여대생 우리들의 모습은?

요즘 인기있는 드라마나 광고를 보면 우리사회의 여성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갖고 있으며 주장이 강하고 더 이상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요즘 여대생들도 많이 달라졌다. '여대생망국론'이란 책이 버젓이 나와 팔릴 정도로 이나라 여대생은 골치아픈 존재였다. 작은 책가방에 카페에 모여 수다나 떨고 졸업하고 나서는 집에 틀어박혀 지식을 썩혀버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리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여학생회에서는 소극적이고 개인적이며 결혼에 목숨거는 여대생의 모습을 지적하곤 하였는데 이제는 복현 여학생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 총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95%이상이 졸업후 취직을 원하고 있으며 과장이나 과대, 학회장을 맡는 여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가 그려내는 여성상이 기존의 봉건적 '여성다움'을 유지한 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능력이 첨가되어 있어 여성들에게는 더욱 질곡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이 여대생들의 이러한 성실성도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인간관계와 사회 현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설혹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도전할 용기를 쉽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난이 여대생에게로 가중되면서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여대생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만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와 문제는 왜 발생할까?

먼저 남녀차별구조를 이용한 제국주의의 노동착취에 의해 여대생들의 사회진출이 구조적으로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열려있는 전산, 교직, 공무원, 통역, 번역등의 제한된 분야에서조차도 여성들끼리 경쟁을 유도하여 임금을 저하시키고 극히 제한된 진출밖에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어진 봉건적 사회관습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성차별의 모순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거의가 20대 초반이기에 인신매매, 성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 2. 그렇다면 여학생회는?

여학생운동이란 바로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여성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즉,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부당함과 차별을 거부하고 학내에서 여학생들의 지위를 높여내고 여학생들의 지향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은 여성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현재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히 인식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인식을 함께 하고자 하는 곳이 여

학생소모임, 여연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힘을 집중시켜 여학생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곳이 바로 여학생회이다.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가진 여학생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회와의 관계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과의 경우 어떠한 체계라 하더라도 매 사업속에서 학생회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의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문운동인 여학생회는 학생회와 서로 보완하면서 내용을 풍부화해야 하며 자기 조직의 학우들을 학생회 사업과 결합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다. 반면 학생회는 부문운동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문운동---학생이면서 또 다른 사회적 처지가 중첩되어 그 처지에 근거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여학생운동은 자신의 처지를 평생 규정하게 되는 '여성'이라는 처지에 근거하여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므로 부문운동의 영역에 포함된다.

### 3. 여학생회 사업은 이렇게

#### 1) 여성자주화의 입장을 자신의 삶에서부터 구현하자.

모든 사상과 이론은 생활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사상은 생활의 작은 말이나 태도로써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학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여학우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모습, 남학생 위주의 문화에 주눅든 모습, 성폭력이나 취업차별에 힘겨워하는 모습 등 이런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들이 남학생위주의 문화에 동조한다든지, 음담패설을 입에 달고 다니고, 여자라는 이유로 굶은 일을 마다한다면 그 누가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주겠는가!

#### 2) 조급함을 버리자.

아직까지 여학생회는 역사도 짧고 경험도 부족하다. 특히과의 경우에는 사업의 정형이 마련되지 못하여 의욕에 가득찬 일꾼들이 쉽게 힘들어하고 성과에 연연해한다. 여학생회는 학생회가 담아 내지 못하는 여학우의 요구를 담아내는 위대한 조직이란 자긍심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즐겁게 일하자!

#### 3) 정치에 민감하고 여성문제에 전문가가 되자.

여학생회라는 구조의 이중성 때문인지 여학생회 간부들은 정치적인 사안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 여성문제에 대한 교양을 열심히 하면 여성문제가 사회의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문 보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자.

#### 생각해 봅시다.

- #자기가 생각하는 여대생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과에서 학생회와의 관계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학생회와 여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여학우와 함께 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연 1-2

94. 1. 28.

강사: 1대 총연사장인 이계숙.

## 올바른 여학생운동을 위하여

94년 1월이 다 가는 이무렵. 대통령도 한바탕 법석을 떨어대던 낙동강 식음수 오염문제마저 순식간에 잠재워버린 여성이 한명 등장했다. 요즘 신문 TV등 각종 매스컴을 요란하게 장식하고 있는 '큰손 장영자'가 바로 그녀다. 파출부 일한 돈, 몇만원을 소매치기 당하고 자살을 선택한 여인도 이땅엔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반추해볼때 그녀는 뭐라 불러야 할까? 아마 훗날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인을 꼽는다면 몇 안 되는 여인중 한명으로 그녀를 추천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큰 손, 장영자만큼은 안 되더라도 작년에 언론의 집중세례를 받은 여인이 또 한명 있다. 변호사 출신의 똑똑한 여자, 황산성 전 환경처 장관이 그녀다. 기자들에게 욕도 냅다 질해대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곳이 국회일지라도 자료를 뿔뿔 집어던지고 물어버리는 시원시원한(?) 성격탓에 술한 언론에 끈임없이 올랐다. 그녀 덕분에 '여자들은 장관시켜줘도 안돼. 아직 멀었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변혁운동과 여학생운동이라는 거창한 제목에 맞지 않게 장영자나 황산성의 얘기를 하는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 사기행각을 벌이고 금융실명제쯤은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두둑한(?) 배짱을 가진 그녀들은 분명 잘못을 저지른 여인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언론에 의해 특특히 망신을 당해도 마땅할 만큼의 큰 잘못이다. 하지만 잠깐 짚어보고 싶은 것은 그녀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언론의 관심을 촉발시켰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김현희'가 여자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고 '여자이고 싶다'느니 뭐니 하는 따위의 책을 쓸 때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통탄했던 것과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언론의 초점이 된다면 이 또한 비견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즉 장영자나 황산성이니 하는, 싫어하는 여인들을 이 신성한 모꼬지 자료집에 올린 이유는 여성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우리 스스로가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언론에서 이러니저러니하면 늘 허덕허덕 따라다닐 일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일을 분석할 필요가 명백히 있다. 문민정부 1년동안 제2정무장관이누군지 제대로 알수도 없는채 지나가버린 안개정국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 여학생운동가 스스로들이 작은 것도 뜯어볼줄 알고 큰 태두리를 예견할 줄도 알고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올 1년을 성공할 수 있다.

1년 여학생회 사업동안 '일과 사랑'에 대한 사랑이 여성문제 관점확립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옛 자료들을 몇부분 소개하고자 한다.





## 파 여학생운동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고 학원내에서 여학우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대중운동이다.

그리고 여권신장주의의 의미를 가지는 페미니즘과는 확연히 분리되는 것으로써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짓밟은 미제와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나갈것을 자기의 방향으로 갖는다.

이러했을때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대중 의식화, 조직화사업과 투쟁사업을 자신의 1차적 임무로 한다.

여학생운동은 우선 지금까지의 제도교육속에서 주입받아왔던 성차별의식을 없애나가기 위해 남녀 공히 바른 여성관과 인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쟁취해야한다. 그의 교육과정속에 있던 남녀차별주의적 내용을 일소해야할 과제가 있다.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학원에까지 만연해있는 성차별, 성폭력문화를 학원에서부터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문화를 양산해야 한다.

여학우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지금, 사회진출의 기회를 보장받아내야한다. 그리고 기층 민중여성의 생존권투쟁의 지지, 지원및 각 계급 계층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모순을 야기시키는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벌여낸다.

## 올바른 관점을 위하여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며,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목적의식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회의 개조를 이루어가는 주체이다. 여성운동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문제가 있다고 모든 여성이 운동의 주체가 되는것은 아니다.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여성만이 자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여낸다.

사회적 모순이 중첩되는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주체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더욱 중요하다. 여러가지 모순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칫 여성문제에 대한 사상의식을 방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주체적 사상의식이 여성해방운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우선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사상에 의해 규제되고 조절, 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해방이론에서도 보다 주체적 관점을 견지하는것이 요구되어진다.

## 95년을 준비하는 여성

통일운동의 한별이셨던 문익환 목사님이 얼마전 돌아가셨다.

아직 우리들의 가슴에 목사님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절절한 사랑은 94년 기운찬 통일운동으로 나타나야할







강연 2

# 간부론

여학생 일꾼들의 새로나기

‘간부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회장’이나 ‘집행부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 간부를 지위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일반적 통념인 것이다. 그러나 간부와 지위는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간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대중과의 관계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대중없는 간부란 있을수 없으므로 간부의 지위와 역할은 대중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1. 대중간부는 학우 대중의 어머니이고 교사로서 지도자의 위치를 가진다.**

먼저 대중간부는 여학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마치 어머니가 아기의 울음소리로 아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파악하듯이 소상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여학우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맞추어야 하며 여학우 대중이 힘있게 여학생 운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제기하여 청년학도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애국적인 열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대중들의 문제제기를 풀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내용만으로 강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간부라 할 수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의 지적 수준이 높은 것과는 연관은 있으나 주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여학생운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교양하는 사람이 대중간부인 것이다. 신문을 날마다 읽고 자신의 학습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대중간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단련일 것이다.

다음으로 대중간부는 여학우 대중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어야 한다. 여학우 대중의 어려움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학점, 경제문제, 연애, 집안문제등등 이러한 문제를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자상히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대중간부이다.

그리고 대중간부는 대중이 식민지 조국의 여성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애국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세히 교양해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간부는 제반 사회 현상을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교양해야 하며 올바른 여성관, 인간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간부는 모든 일에 주도적이어야 한다.

대중의 요구를 잘 알고 이를 구현할 방도까지 알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대중속에 들어가 사업을 펼쳐내지 못한다면 대중의 요구를 실현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여학생운동을 힘있게 펼쳐갈수 없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학우들을 주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술자리에서 주동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2. 대중간부는 사상에서 지도적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실무 능력을 가져야 한다.**

1) 사상에서 혁신적이어야 한다

여학우대중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사상을 기초로 해서 여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야 한다. 여학우 대중을 사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진정 자신의 본성적 요구로부터 모든 억압을 이겨내고 여성해방의 당당한 주력군으로서게 될 것을 신뢰하고 사업의 기획, 집행과정, 평가등에서 이러한 관점을 잃지 않고 항상 반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2) 대중간부는 책임성과 헌신성을 간직해야 한다.

대중에 대한 헌신성은 여학우 대중의 삶 전반을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생활 속의 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중간부가 여학우 대중의 상태에 맞추어 자신의 생활을 조직할 것이 요구된다.

3) 대중간부는 여학우 대중에게 정치적 지도력을 담보해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빠짐없이 해석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사람이 아닌 여학우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간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지도 없이 여학우 대중에 대한 헌신은 대중의 공무늬를 쫓아다니는 꼴이며 여학우 대중의 의식을 한단계 높은 곳에 끌어올리지 못함으로써 결코 대중의식화, 조직화를 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모든 사건을 인식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정치적 지도의 준비가 되어있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4) 대중간부는 실무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학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글틀를 잘 치는 것, 프랑카드 만드는 것, 놀이와 사회를 보는 것, 회의를 운영하는 법, 심지어 오락을 잘하는 것 까지도 대중간부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간부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 이론뿐 아니라 여러 실무능력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총노선

· 자본에 따라  
· 여학우 X여 따라  
· 자본항상 현재 여학생의 집단  
· 공강체계가 서 있어 X, 여학생이 풀  
> 남부의 문제, 하느니 못다.  
(재생신)  
· 여학생운동의 지향점을  
· 강령제정의 지침과 올바른  
· 상의 분개

## <여학생운동의 자증심이란>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고 학원내에서 여학우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대중운동이다.

또한 여학생운동은 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제재와 구속, 소극성 때문에 생활속에 깊이 밀착하여 하나하나 깨우치고 함께 나아가는 대중운동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이는 여권신장주의의 의미를 가지는 페미니즘과 확연히 분리되는 것으로써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짓밟는 미제국주의자와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나갈것을 자기의 방향으로 갖는다.

이러할때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대중의식화, 조직화사업, 투쟁사업을 1차적 임무로 한다.

여학생운동은 지금까지의 제도교육속에서 주입받아왔던 성차별의식을 없애나가기 위해 남녀 공히 바른 여성관과 인간관을 심어줄수 있는 교육내용을 쟁취해야 한다.

그외 교과과정속에 있는 남녀차별주의적 내용을 일소해야할 과제가 있다.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학원에까지 만연해 있는 성차별 성폭력 문화를 학원에 서부터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문화를 양성한다.

여학우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금 사회진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층 민중여성의 생존권 투쟁의 지지, 지원및 각 계급계층 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모순을 야기시키는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벌여낸다.

## <부문제열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 94年 1月 29日

지향(운동) 자신의 지향. 차이에 대해 정명해 나간다.

여학생회는 학우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인 학생회속에서 여학우들이기에 느끼는 어려움을 주인이 되어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여학우조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학생운동이라고 하며 이는 학생운동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계열운동이다.

애국적인 지향과 요구가 드높은것은 청년학생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애국적인 지향과 요구를 높여내고 모아내며 이러한 힘이 전체학생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부문계열운동은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하겠다.

여대협이 성폭력 근원 주한미군 철수투쟁, 전사련의 임용고시철폐투쟁, 공대의 민족과학기술운동등은 학우들의 다종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전공별로, 또 특수한 처지에 따라 풀어나가는 부문계열운동의 모범이라 할수있다. 이러한 학생부문계열운동의 성격과 내용은 전체학생운동을 풍부화 대중화 시킨다.

또한 사회 전문분야로 진출하는 예비 사회인인 학우들을 민주적이고 애국적 시민으로 양성한다.

학생부문계열 운동으로써 여학생운동이 청년학생운동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켜 내는가를 보자.

**첫째로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 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청년학생 운동에 동참할 만큼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여학우들이 많다. 이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을 만들고 탁아자원 봉사 활동등의 최소의 실천경험을 쌓아 자주적인 활동성을 높여내게 한다. 이런 자주적 활동의 경험이 전체 운동에 대한 의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여학생회에서 성폭력퇴치 투쟁을 할 때 단순히 남녀 학우들의 의식개혁, 가로 등 확충, 구찰대를 해결대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윤금이씨 투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주한미군이고 문민정권의 본질이 사대 매국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성문제의 근본원인을 바로 보고 투쟁한다면 여학생 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지금까지 경대여학생 운동은 내용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학생회 사업을 하는데 있어 학생회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몰이해, 또는 전체 운동 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위치를 못본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일꾼들이 힘이 빠지거나 서로간의 감정대립으로 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여학우들이 여성문제를 느끼는 곳에 이를 극복하려는 모임이 건설되고 자주적인 노력은 전체운동의 방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볼때 학생회, 여학생회 일꾼은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여학생운동의 개괄적 정의와 임무,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을 살펴 보았다. 이는 우리 일꾼들이 여학생회의 1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찾는 것으로부터 이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틀어줘야 할 것은 여학우의 자주적 삶을 실현시키고 전체 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이 여학생회 일꾼이라는 자긍심이 될 것이며 과의 여학우, 단대의 여학우, 7천 여학우를 책임지는 힘이 될 것이다.

**<복현 당당한 자주여성의 상>**

1. 오랜지족으로 대표되는 한탕주의, 이기주의의 왜곡된 신세대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활에 당당하며 주인됨을 잃지 않는 복현여성**

민족경북대의 많은 여학우들은 '신세대 여성'을 진취적이고 자신의 삶에 당당할 줄 아는,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내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스로도 이 쟁기는 살뜰함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고마왔다는 것이다. 그 후배는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모습은 '과에 여자가 많이 들어오면 안돼'라는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비단 그 과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마음이 따뜻하여 주위의 아픔을 잘 느끼고 후배를 쟁김에 있어 정성을 다함은 여학우의 좋은 장점이다.

많은 여학우들이 과에서 소모임의 장으로, 학회의 주체로 과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는 과 학생회장을 여학생이 하는 것도 그리 어색한 일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과를 훌륭히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여성의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정권의 본질을 바로 보고 당당히 비판하고 요구할 줄 아는 용기있는 복현여성**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가지만 문민정부는 지난 일년동안 우리 여성에게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했다. 몇년에 걸쳐 여학생회와 여성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 처벌법은 정조관념을 기본으로 삼고 있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이 미약한 눈가림식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간제근로 합법화, 성차별고착화하는 신인사제도 용인등 문민정부의 본질은 여실히 드러났다. 윤금이씨 사건을 접하면서 정권이 자주성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이땅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주범 주한미군의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김영삼정부 또한 최소한 독립국으로 가져야 될 수사및 재판권의 포기과 살해 마군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 조금도 자주적인 정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성폭력문제에서부터 취업문제로 자살하는 여대생의 현실까지 문민정부가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우리 여학우들은 당차게 외쳐야 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영삼 - 여성정당으로 불가.  
∴ 정부내 제정시킬.

**제 9대 자주총여 총노선**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으로 여학우 삶 속에서의 자주성 고양을 통해 민족 복헌 **당당한** 자주여성의 삶을 실현한다.

기본과제 **주도해나간다.**

1. 총여학생회를 실질적 대표기구로 세운다.
2. 단대의 자립자활력을 높여낸다.
3. 생활단위 학회 소모임을 안착화시킨다.
4. 일상사업을 강화한다.
5. 올바른 관점에 입각해 여학생운동을 풀어나가기 위해 간부혁신을 이룬다.
6. 생활속에 실천하는 여학생운동을 창출한다.





한 지침을 분화해서 마련하고 이를 단대로 내려 단대회장님들이 과실정에 맞게 직접 지도해낸다.

2) 여연연구단위를 통한 내용적 지도로 각 단위가 여학우에 근거한 자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사업에 가져가게 한다.

단위에 정책이나 연구단위가 마련되어 단위 실정에 맞는 내용과 정책이 생산되어야 하나 아직 단대의 역량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중앙연구 단위로 집중을 하고 단위에 필요한 내용을 생산한다.

3) 세로모임의 안착화를 통해 집행력을 강화해 낸다.

각 단위의 집행단위가 튼튼히 서지 못하다보니 단여쟁이 중앙의 내용을 단대에 푸는 데에도 힘겨움이 들었고 실무부담까지 하게 되었다. 집행단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여학생회를 내용적으로 풍부화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부서의 세로모임은 꼭 필요하다. 이속에서 중앙단위의 내용이 각 부서를 타고 전면적으로 공유되며 특히 각 부서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피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대간부의 내용성 부족은 결코 단여 회장의 지도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총여, 단여, 과여가 세로모임이라는 형식을 타고 전문성을 담보했을때 단여회장은 실무부담을 덜고 내용의 고민과 전체 여학생운동속에서의 단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가 녹아나는 다양한 생활단위소모임을 건설, 안착화한다.

「문제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는 여학우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이것이 개별적이고 과가 생활근거지가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타아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는 많은데 단위주체의 부재로 소모임으로 안착화시킬 지도가 없었다. 여연이 건설된 과는 많으나 개개 여연별로 진행되고 있고 책임고토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여연을 생활단위 소모임으로 정착시켜 생활적 결합을 높여내고 여성문제를 실천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소모임 건설지도를 단여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해내야 겠다.

「방도」

1) 과단위 취업준비 소모임 건설

학업이나 취업준비에서 분야가 비슷하고 전공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소모임으로 엮어 다양한 정보공급과 지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2) 대중적 행사사업을 통한 여연, 타아소모임 건설

타아나 여연이 아직 건설되지 못한 과에서는 예비대학대 신입생과의 결합력을 최대한으로 높여내고 큰 기획사업을 통해 여기에 참가한 학우들을 소모임에 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단대, 과여에서 고민을 발전시킨다. 특히 단어나 과여가 없는 단대에서는 총여가 기획사업을 통해 소모임을 건설하고 여연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여학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3) 여연을 생활단위 소모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여연단위에서 단위내용에 기반한 내용으로 운영지침서를 발간하고 교사모임, 세로모임을 통해 지도한다. 여성문제를 실천으로 풀어내는 곳이 여학생회이므로 여연과 여학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 생활지침.

4) 타아소모임의 안착화

올해는 단위의 주체가 마련되었으므로 중앙과 일관된 맥으로 지도하고 단여는 개별적인 타아활동에서 소모임으로 정착시켜 여성문제 인식을 기한다.

**4. 일상사업의 강화**

「문제점」

여학생회사업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으로 비상벨을 끄는 여학우들이 많았다. 이는 여학생회의 중요성을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일상사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하지만 단순한 복지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매개를 통해 여성문제 인식 확산을 통한 자주성 고양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틀어줘야 하겠다.

「방안」

**1) 중앙부서의 전문성 확보로 여학우 삶에 밀착한다.**

올해는 총여의 인복이 학자로 발전되어 여성학교과과정, 여성전용 취업정보센타등 한층 발전된 여학우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학술·편집·여연연구단위, 선전부 등 대중의식화 사업에 있어서도 체계가 전문화, 세분화하고자 한다. 학술은 대중교양사업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며 강연, 영화제의 정기화, 여성과 사회수업 공개, 성교육내용 보강과 전면화를 고민하고 여연은 여성학의 깊이있는 내용과 단대에 맞는 내용생산등을 고민한다. 편집부는 월별 신문발간과 총여기관지 발간을 하고 선전부는 행사홍보 차원에서 기획선전의 강화로 여성문제 인식확산을 가져온다.

**2) 여학우 의사개진운동**

일상적인 여학우의 의식흐름과 요구, 총여사업을 학우들속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 여휴를 통한 여론수렴, 사업 후 평가 사진전, 이동총여, 과순회 간담회등으로 진정 여학우 삶속에 여학생회가 놓여져야 한다.

**5. 올바른 관점에 입각해 여성문제를 풀어갈 간부혁신을 이룬다.**

「문제점」

부문운동이 자기 내용의 전문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자연 소멸하며 전체 운동에 복무하지 못하면 분리와 대립을 가져온다.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자기 내용성 확보와 끊임없는 여학운에 대한 교양으로서 여학운에 대한 자긍심으로 여학우의 자주성을 고양시켜낼 간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방안」

**1) 간부의 생활혁신**

중앙의 간부정책 마련을 통한 여학간부의 올바른 상을 내어오고 조종례, 생활총화, 전원조례 등을 통한 간부의 생활력을 높여낸다.

**2) 간부교양 내용의 생산으로 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

일꾼학교의 적절한 시기별 개최와 총여, 단여 단위로 간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상시적으로 공급하며 세로모임 단위로도 실무와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을 실시한다.

**6. 7천의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여학생운동의 창출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한다.**

「문제점」

여성문제를 느끼는 7천 여학우 모두가 스스로 여학생운동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방안」

- 1) 물갈이 투쟁의 전복현화
- 2) 지역민민 탁아활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농활을 통한 여성농민과의 힘찬 연대, 지역 여성단체와 연대
- 3) 기지촌 활동의 토대 마련
- 4) 성폭력 주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운동본부와 연대.



## 여성해방의 序

신 동원

그대 반쪽만의 기쁨을  
기쁨이라 하지 말자  
그대 반쪽만의 자유를  
자유라 이롭짓지 말자  
그대가 누려온 기쁨과 자유  
그것의 절반은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니  
이제는 고개 숙여  
낮은 대로 귀 기울여 보라  
소리도 앓기고  
몸짓도 앓긴 채  
오랜 어둠에 익숙해져  
어둠이 어둠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무지와 침묵의 땅에서  
꿈틀거리느 몸짓을 보아라  
억압과 차별의 굴레를 거부하는  
해방의 몸짓을 보아라  
이제는 돌리줘야 한다  
그대가 가졌던  
온존치 못한 자유와 기쁨과 힘  
어두운 시대의  
부담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돌리줘야 한다  
그대와 손잡고 나갈  
또다른 새날을 위하여  
그대와 함께 싸워 나가야 할  
인간해방 평등의 세상을 위하여  
이 산하 푸른 하늘 아래  
우리는 결코 꽃으로 머무를 수 없다





-UR협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UR회담이 93년 12월 15일 종료를 선언한 후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은 UR은 이제 다 끝난 것,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UR은 아직도 많은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타결된 최종의정서는 각국의 서명없이 전원합의 형식으로 타결하였으며 법률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수정 및 양허표 확정은 미완료되었다. 그리고 UR의 정식 발효는 95년 7월 1일이다.

먼저 94년 2월 15일까지 각국은 최종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를 모아 4월 15일 모로코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의정서에 최종서명을 하게 된다. 이는 '서명협정안이 최종정본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절차에 회부한다는 약속'이다. 각국은 서명된 협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94년 말이나 95년 초까지 의회로부터 동의(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일정을 거치고 난 후 95년 7월 1일 UR은 발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세계각국은 무난한 절차를 밟을 것인가. 미국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62명은 14개 수입제한 품목의 개방에 반대하는 서명을 이미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 캐나다의 경우 퀘벡주 등이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문제삼아 분리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UR협상의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는 국민경제의 자립적 발전, 식량안보 등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UR의정서가 강행될 경우 이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아울러 2월 15일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국별 최종 이행 계획서는 미국 캐나다등의 변화 상황을 주지하여 제출을 연기하거나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처리하여 이후 제협상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가트 체제 내에서는 제협상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비준을 거부하고 제협상 등 이의를 제기하면 가트는 우리나라 수입개방문제를 쌍무협상국이었던 미국과의 제협상을 권고할 것이다. 따라서, 둔켈 초안에도 없는 BOP품목이라는 개념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된 쇠고기, 감귤, 낙농제품등에 대해서 강력히 제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 통일에 앞서 확대될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해줄것을 가트에 정식으로 요구하여 인정받아야만 한다.



## 총여에는 요런 부서가 있어요.

### 사무국

안녕하세요? 사무국은 총무와 기획을 맡아하는 부서입니다. 총여의 정책에 맞추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사업 집행의 총화, 조절을 담당합니다. 또한 전체 집행부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생활, 품성의 혁신을 위한 생활총화를 합니다. 무엇보다 총여집행부들, 나아가 칠천 여학우들의 사랑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조직정책부

탁아사업을 제외한 연대사업과 여학생회 일꾼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는 부서입니다.

연대사업으로는 기지촌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식민지 조국의 현실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제 2의 정신대라고 불리우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투쟁방향을 내어오고 자주, 민주, 통일의 길로 함께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중과 함께 할 때만이 승리한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으면서 민족해방, 여성해방의 길을 칠천여학우와 함께 할 것입니다.

### 학술부

요즘 부쩍 여성학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봉건적 잔재가 심하고 여성억압이 사회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관심은 분명 긍정할 만한 것이지만 어설프게 페미니즘을 표방하며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영화나 소설등의 대중매체가 오히려 여성해방의 의미를 왜곡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학술부에서는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한 일련의 교육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올바른 여성관, 남성관을 확립하기 위한 강연회, 영화제를 비롯하여 일상적인 기획자보로 여학우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강연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여연부

스물 몇해를 살아오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남자이기 때문에 과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적이 한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바로 '여성문제 연구모임'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 많은 과에서 여연이 건설되어 있고 또한 생겨나기 위해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연부에서는 각과 여연들과 함께 숨쉬고 고민하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편집부**

편집부는 총여의 많은 고민과 내용, 사업들을 여러분께 알려내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입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8대를 거치면서 질적인 발전과 그 깊이를 더해왔지만 7천의 모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고 사업을 공유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총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만드는 총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학원자주화추진부**

학자부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함께 가장 풀어나갈 수 있는 부서입니다. 다른 학자 주체들과 함께 열심히 학원자주화의 길에 복무하면서 동시에 여학우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또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동안 여학생휴게실 마련, 여성전문 취업센터 등의 사업과 여성학과목 개편, 교육환경 개선, 일상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여학생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함께 의논해요.

## ■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업은...

### <예비대학>

각 단대마다 학생회 체계를 꾸리고 그 체계의 안착화를 위해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19일부터 있을 예비대학에서 여학생회는 새내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각 단대 여학생회가 예비대학을 맞이하는 의의와 목표를 미흡하나마 정리하려 합니다. 이 중 각 단위의 구체적인 처지와 실정에 맞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사업으로 구체화시켜냈으면 합니다.

#### 1. 예비대학의 의의와 목표

예비대학은 93년도에 처음 제기되면서 새내기 정책의 일관된 기조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기간의 학생회사업에서 관성적으로 진행되던 새내기 행사를 평가반성하면서 이제 새내기 사업을 하나의 일관된 기조와 새내기 정서에 맞는 내용으로 올바르게 준비해야겠다는 일꾼들의 결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비대학에서 여학생회 일꾼들이 좌표로 삼아야 할 의의와 목표는

##### #내용적 과제

- 새내기들에게 여학생회를 알려낸다.
- 성차별 교육속에서 왜곡된 여성상을 극복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기초적 인식 확산을 이룬다.
- 예비대학에서 제기되는 고민들을 대동학교로 모아낸다.

##### #조직적 과제

- 실제적 사업의 첫 시작인 예비대학을 통해 과 여학 일꾼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감을 익혀 체계의 안착화를 이룬다.
- 여연이나 타아 소모임이 있는 과는 이를 알려내고 이후 조직화한다.

### <전여대회>

#### 1. 전교여학생 대표자 회의란

총여학생회가 실질적으로 칠천의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칠천 여학우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각 단위 여학우 주체를 만들어 내고 그 역할을 높여내야 한다. 즉 총여학생회가 실질적인 여학우 대표기구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 수 있는 것이다.

#### 2. 전여대회의 의의

1) 여학생회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내올 수 있다. 몇몇 간부의 고민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기층에서 직접 학우를 만나는 과일꾼들의 생생한 고민 속에서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2) 간부들의 지위와 역할을 찾고 책임성을 높여내며 질적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자리이다.

각 과 여학우대표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대표들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찾고 있는 실정이다. 전여대회를 통해 과 여대표에게 지위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과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3)총여, 단여, 과여가 사업에서 통일된 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 집행할 수 있다.

전여대회를 통해 1년 사업 기조와 일정을 공유하고 이를 단여,총여가 일관된 기조 속에서 구현할 수 있다.

4)단위의 모범 전파로 더욱 발전된 여학생회를 내을 수 있다.

각 단위의 모범적인 사업의 정형을 소개하고 이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러한 전여대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단여 운영위원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는 집행부의 집행력이 담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중앙단위의 지도가 보장되는 방도를 고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물갈이투쟁의 전 복현화

복문 앞 '아우토반' 사건을 아십니까?

이 술집에서 여성에게는 남자 나체잔을 남성에게는 여자 나체잔을 주었다하여 복현골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은 '재미있다.' '흥미있다.'는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윤금이씨 사건을 접하면서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소문을 들으면서 "야! 성폭력이란 게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때론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끊임없이 성을 상품화 시키고 성폭력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동문회나 페스티벌에서의 야한 게임들, 2차로 가게되는 동대구역 여관의 포르노 비디오, 과 방에까지 굴러다니는 음란 만화들.....

이 모두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학내외의 모든 성폭력 문화의 추방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하겠습니다.

학교밖 업소들에 대한 조사작업에서 부터 야한 사진 바꿔주기, 퇴폐 업소에 대한 불매운동, 학내 건강한 문화 만들어내기까지 학우들의 생활 곳곳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 단여 학생회, 과여학생회가 함께 복현의 건강하고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일상적인 성교육 세미나를 열고 과내 생활에서부터 성폭력문화 추방의 결의를 다져오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칠천여학우와 이만 복현학우와 함께 우리 생활에서의 모습을 반성하고 건강한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물갈이 운동의 전 복현화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 기지촌 활동

올 해 윤금씨 사건을 보면서 한반도 성폭력의 근원이 주한미군임을 알았고  
 이의 피해자는 기지촌 여성에서부터 우리 민족 전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지 지난 89년 서울 용산미군 기지 맞은 편 '성조기' (미8군 신문에) 보급창구에서  
 7년동안 수억원 어치의 음란기구, 음화, 포르노 비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음란서적, 포르노 비디오.  
 대부분이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군기지는 우리 사회에 항락문화를 확산시키는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한 미군 범죄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기지촌 여성입니다.  
 기지촌 여성은 주한 미군이 저지르는 강간, 폭행, 살인의 제1차적인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마약과 AIDS, 음란 포르노 유통등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주한 미군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국혜씨 사건에서처럼 보여지듯이  
 기지촌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지촌이란 어떠한 곳인가?

기지촌이라고 하면 보통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주지와 상권을 일컫는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이태원, 동두천, 그 밖에 의정부, 송탄, 군산, 송정리, 부산 등이 있습니다.  
 이 곳들의 특징을 보면 미군기지가 들어와 번성하기 시작하는 도시로 주민 대부분이 기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여 엄청난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권의 형태가 미군기지에 기생하는 형태로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미군기지가 없어질  
 경우 그 곳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지촌은 그 기생성으로 하여  
 많은 문제를 내포,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퇴폐향락적인 문화가 이 기지촌을 통해 유포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아이들 교육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기지주변에 가장 크게 형성된 매춘여성들의 문제, 이 속에서  
 파생되는 혼혈아 문제, AIDS 파급의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기지촌은 여성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데, 기지촌을 이루는 사람의 대부분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이고 이를 통해 사생아인 혼혈아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곳 기지촌으로 몰려오는 여성은 집안이 어려워 가출을 했다가, 직업 소개소에서 사창가나 기지촌으로,  
 인신매매 당한 경우, 강간의 경험을 이기지 못하고 사창가를 돌다가 기지촌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봉급수준이 너무 낮아 다른 일을 찾다가 이 곳에 들어오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여성의 대부분이 우리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침묵하게 가지  
 고 있다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문제를 안고 와서 이 곳 기  
 지촌에서 더욱 더 그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욱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기지촌활동은 이미 경기지역 여대협이나 서울지역 여대협을 중심으로 기지촌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윤금씨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전국에 퍼져있는 미군기지 주변에 대해 우리 지역에  
 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작업과 함께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 사회단체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기지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혼혈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방, 공부방활동, 클럽방문, 기지방문, 지역조  
 사등이 있습니다.

# 94' 여학생회 일꾼 모포지

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을 없애기 위하여 남학생보다 두 배, 세 배의 노력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휴멍에 따른 손해입기보다는 대학원의 기본적인 생활자세에 어긋나지 않는, 자신에게 어울리던 티셔츠 하나라도 아꼈다고 생각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

2. 여성을 생활화시키는 정책적용과 추방의 파괴적요 당당히 일어서는 복원여성

아우르만 나체산, 나체산이, 아만 사인, 조노 비디오, 아만 농담, 복근, 정은 앞의 출판사적... 강대주인은 그이로써 완전히 생략하여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아이 무리들의 생활은 정상화되어 생활에 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다이상 지시할 수 없다면 일어난 복원의 당당한 여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특출한 생활화정책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우대상 불평등에 대한 서명운동에 힘입고 직접 현우와의 연담을 통해 아만 자신을 없애고 할을 잃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이런 여학생들을 복원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자신의 생활 근거지는 스스로가 지켜나갔다는 후진의식으로 복원여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정책적 문화 수양의 노력이 시작될 것이니.

3. 여학생들의 생활 근거지인 과제서 관제를 위해 자기 역할을 맡으며 관제이과 주제로 성실히 생활하는 믿음직한 복원여성

인문대 여학생회에서 가을 학과제에 '내가 만난 인물'을 주제로 토론 할아가 대화를 걸었다. 거기서 다수를 한 자주는 100명인 여학생이었다. 그 여자의 내용은 '우리를 처음 알아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가장 가슴이웃하게 돌아온 이별이 과거에 만나왔고 집에 꼭 마음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로 하더라도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해 그 최종으로 후배 되고 결정하는 단련었다. 그러나 후배문명인으로는 편차가 심한 단련의 생활을 다 리가할 수 없고 심지어 거울 파괴자의 지도와 자양공급기 미비였다. 용어학살이 실질적으로 학생문제를 일련의 일에서 끝나가는 데로조각조각으로의 위장을 갖추어온 일련 여학생은 단련의 이별과 요구를 담담할 수 있도록 과거의 후배를 만들어내고 그 역할을 놓아주어 한다. 이러한 용어는 여학생 대표자들에 기반한 여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실천의 과제로 함께 하여 일련에 근거한 대표조각조각의 위장을 놓아주어 한다.

4. 원고 여학생 대표자회의를 성사시킨다.

원고여학생 대표자회의는 몇몇 관부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사건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리이다. 또 각 단련 여학생 단체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여학생회(부)장이나 여학생회의의 지위를 제대로 찾아 여학생에게 지위의 책임을 부여하고 과의적 사건의 모형을 소개하고 과의사건의 경험을 지련하는 모체가 되어 여학생문들의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이다.

또한 단련 과 여학생회의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5. 단련 제일 문들의 활동으로 단련의 책임과활력을 높여낸다.

6. 단련이 직접자활력을 가미하면 먼저 과의나 여대표에 대한 지도력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단련 여학생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과 의 수순에 맞게 구체적 단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를 강회시켜 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의 서일이 과의 강회에 후쿠할 수 있도록 자기 단련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지도력 내어야 한다. 또한 단련여학생들의 요구를 할 수 있어야 중앙으로 통일시켜 내야 한다. 단련은 중앙의 사안을 전담하는 단련인 문들은 아니며 중앙의 내용 마련의 풍부한 목표이자 중앙 사안을 알리며 맞게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단련은 한류와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련의 실정에 근거한 관부적인 행위를 확보해야 한다. 사련대의 이그사 문들의 같은 계열문들의 독자성을 살려 볼 수도 있었고 그것이 학문의 영역으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단련의 정서와 목적에 근거한 내용으로 일생사상이나 자기별 사장에서 녹여주어 한다.

7. 단련.

8) 단련 여학생 과의의 지도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 여학생의 연구 소위원회와 장의 및 부하

과여학생의 직접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가 직접 과사실 정원을 마련하였으나 단련대에 특출한 내용으로 내려져서 실질적인 작용이 없어졌으며 학과로 피로 내어감으로 단련의 과의도면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책은 단련대, 사련대를 중심으로 단련 과의 정무제도가 마련된 단련과 사련대 지련대를 중심으로한 여학생으로인 단련, 단련 여학생이 없는 곳 에 대한 지원을 분화해서 마련하고 이를 단련대 내의 관제화담당들이 과의정에 맞게 직접 지도해낸다.

9) 이단연구단위를 통한 내용 지도로 각 단련과 여학생이 근거한 과의적이고 관부적인 내용으로 사련에 기재가 된다.

10) 단련이 학과적이나 연구단위과 마련되어 단련 실정에 맞는 내용과 정책이 정립되어야 하며 학과 단련의 역할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중앙연구 단련도 볼

하나되기 1년전 1월 28~29일  
 구룡포 수련원에서  
 7천의 어깨동무 제9대 자주총여

#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



여성이 사는 이 험난한 세상 교육과 취업에 차별이 있어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더 이상은 살수가 없어  
 교육, 차별없는 평등교육을  
 취업, 차별없는 고용평등을  
 여학우와 함께하는 자주적 여학생회  
 7천의 어깨동무 자주적 여학생회  
 (침춘개사곡)

우리들의 사랑은 보랏빛 꿈결이 아니죠.  
 흥미한 불빛가페의 속삭임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청춘은 혼자서 꽃피는 게 아니죠.  
 더불어서 군군하게 피어나는 코스모스,  
 지치고 쓰러져도 다시 피어나는 꽃  
 눈물보다 더 빨리 모질게 피어나는 꽃  
 자주적인 여학생회 친구처럼  
 언제나 함께하는 편치않는 사랑이죠.  
 여성해방 그날까지 편치않는 사랑이죠.  
 (우리들의 사랑은 개사곡)

##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유인혁 금.곡

동해에우거지는 저 태양은 깊은 어둠을 벗고 백두  
 우리기함개리는 이 한결을 고 난의아사꽃 벗고 남녘

1. 에 서 안라 까 지 빛나 는 새벽을 열 - 듯

2. 에 서 북녘 까 지 하나 된 새날을 연 다 길라

진 조국의 하 는 이 개부단 독재에모진 탄 압 속 에 서란

을 던고산 긴 등 이어 외치라저녁의 열 린

달 환한민중이주 인 되: 하 나의민족하 나의조국

나 서기라 빈 등 이어 동 원의깃발이 래



\* 1/28 - 29. 총서 읽기 (인문대 - 1/28)

• 전체적인 평가: 2차년도 (다양한 여행양식에 대해) 2차년도

• 강연. 1. 여행사들의 평가를 이해: 여행사들에 대한 가치와 역할은 2차 년도 전체양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 있다.

2. 총서.

3. 간부.

나치적, 해독, 4월 19일(2011)  
가야살에게 유동했어.

정면에서 보.

하반기 4월 19일 보.

모든 인문대 전체 4가지 특색을 보게 된다. > 2차년도 전체 (여행사들의)

'지세평가' (2차년도 - 2차년도)

여행사 여행사들의 관련. - 2차년도에 대한 전체양식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

• 2차년도에. 2차년도에 대한 이해 (이것이 2차년도)

• 총서의 강조 - 2차년도에 대한 이해, 2차년도에 대한 이해, 2차년도에 대한 이해, 2차년도에 대한 이해, 2차년도에 대한 이해.

• 세로 - 총서: 2차년도에 대한 이해, 2차년도에 대한 이해. 여행: 2차년도에 대한 이해, 2차년도에 대한 이해.

평점: 2차년도에 대한 이해, 2차년도에 대한 이해. 강조:

• 0.4 - 2차년도에 대한 이해, 2차년도에 대한 이해.